

## 우수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최원규 | 한국어촌어항협회 마케팅팀

### 출발

동·서·남해를 대표하는 어촌체험마을의 운영리더들과 지자체 공무원,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어촌어항협회 관계자들이 호주의 선진 바다관광 현장을 벤치마킹하며 체험마을의 운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호주 견학의 경우 제3회 우수 어촌체험마을 선정대회 11개 수상마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호주 시드니 동북부 해안과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해안을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4박6일간 돌아보게 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나를 포함한 16명의 참가자들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일요일 저녁 인천공항 3층 집결지에 모여 수속절차를 마치고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둘째 날

첫째 날 10시간 30분을 비행기 안에서 보낸 후 우리는 드디어 다음날 아침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후 호주에서의 4박5일간의 일정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통역과 안내를 책임질 가이드 제임스의 일정설명과 주의사항을 들은 뒤 3시간을 달려 첫 목적지인 포트스테판 벨슨마을에 도착했다. 시드니가 복합적인 다민족 문화를 형성한 대형도시라면 그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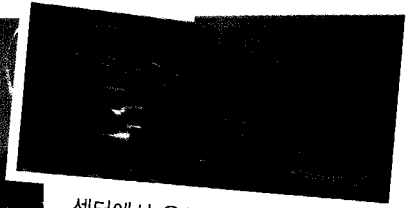
해 포트스테판은 한적한 시골로서 전통적인 호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벨슨마을의 경우 야생 돌고래를 볼수 있는 마을이라는 테마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한인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벨슨마을 항구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는 1970년 건조된 크루즈선에 탑승, 야생돌고래를 보기위해 남태평양으로 향했다. 1시간 30분 동안 외해로 나가 야생돌고래를 관찰하는 체험으로 하루에 3회 운행되고 있으며 사막투어와 함께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었다. 승선한 체험객을 위해 제공된 커피와 과자류를 먹고 휴식을 취하며 바깥풍경을 즐기고 있을 무렵 배의 앞쪽에서 갑자기 와~ 하는 환호성이 들려왔다. 드디어 야생돌고래 무리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실제로 가까이에서 돌고래가 유영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부럽기도 했다. 크루즈선 체험의 경우 단순히 배를 타고 야생돌고래를 보는 체험이라기보다 선내에 부착된 과거 이지역의 선착장 모습, 크루즈선, 시설사진 등의 설명을 통해 승선한



야생 돌고래 체험 포스터

| 해외탐방 |



센터에서 운영하는 Bottle Shop

체험객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효과도 이끌어내고 있었다. 선장에 게 가업을 이어 3대에 걸쳐 크루즈선을 운행할 수 있는 비결을 묻자 안정된 수익과 전통을 이어가는 자부심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어촌체험마을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유입을 통한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해보며 두 번째 체험지인 벨스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스톡톤마을로 향했다.

이색적인 체험을 마치고 숙소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지역 어민클럽을 방문해 지역 어업인들과 저녁 식사 겸 간담회 시간을 통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어민클럽의 경우 어업을 생업(참치어선 등)으로 종사하는 회원과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500명의 정회원과 2000명의 준회원들이 지역홍보를 위한 낚시 이벤트 진행을 위한 자원 확보 및 구성원들 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결성된 자치 조직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낚시 동호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듯하다. 어촌체험마을에서도 어민클럽과 같은 낚시클럽을 만들어 회원제로 운영하며 낚시 동호인들을 지역으로 유치해 이벤트 진행 및 대회를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셋째 날**

오전 8시 전날의 고단함 때문인지 숙면을 취한 후 조식을 챙겨먹고 살라만다 마을에 있는 홀버츠 굴 양식장으로 향했다. 과거 굴 양식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이 굴의 세척 및 선별과정을 유리벽을 통해 방문객들의 볼 거리로 제공하여 프로그램화함으로써 수산물의 시식, 구매로 이어지도록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이번 양식장 방문을 통해 현재 여러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공공장 건립시 이러한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내부 견학을 마친 후

양식장 측에서 방문객들을 위해 신선한 굴과 새우를 즉석에서 시식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 미리 준비해간 초고추장을 이용해 고향을 맛 느끼며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냈다.

시식후 우리는 인근 벨스마을에 위치한 관광안내센터를 방문했다. 도로 곳곳에 i 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주류, 낚시미끼, 음료 등을 판매하는 Bottle Shop이라는 가게를 정부로부터 세금을 감면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라는 것이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미리 지역관광정보를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 안내센터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많이 축소 됐다고 아쉬워했다. 내가 하루에 얼마정도의 방문객이 오냐고 묻자 친구들이 가끔씩 방문하며 우리 견학단이 근래 찾아온 가장 대규모의 방문객이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외부 관광객이 방문하면 체험예약 및 지역정보를 제공하며 Bottle Shop과 같은 가게나 낚시가게를 병행해서 운영하며 정부의 세금 지원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지역 종합정보안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포트스테판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일행들은 6시간 거리에 위치한 알라달라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우라시 내에 위치한 알라달라 마을 도착 후 시청 관광과 톰 필립스 부장과 마을 어민클럽에서 지역 관광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누기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나우라시의 경우 지역 경제에 있어 전체 수익 중 관광업을 통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83개의 캠핑카 주차장(caravan park)이 구비되어 있어 1개소당 1,000명 정도의 인원

을 수용하고 있으며 휴가철에는 지역 주민들이 펜션, 민박의 형태로 숙박을 제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1시간 정도의 간담회를 마치고 우리는 호주일정 중 유일하게 선상에서 숙박을 하기 위해 알라달라 항구로 이동했다. 개인적으로 크루즈라고 해서 호화로운 유람선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1960년 건조된 군함을 개조한 낡은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우리가 숙박을 하게 될 MV Cruise선은 가족경영 형태로 아버지와 아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 조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선실도 좁고 샤워시설도 너무 형편없이 일행들 중 항의가 빗발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지만 각 마을 어촌계장님들을 포함한 일행들은 과거 선원들이 생활하던 선실에서 불편함을 체험해보며 숙박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체험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낡은 군함을 이용해 관광체험용으로 이용하듯이 체험마을에서도 페어션을 활용해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물론 법률적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였다. 일행들은 휴게실에서 잠시 담소를 나눈 후 다음날 새벽 낚시 체험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 넷째 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는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에 잠을 깨 정신을 차렸다. 배 멀미를 하는 나로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낚시 체험을 준비했다. 체험을 위해 선상으로 올라왔을 때 선장 피터와 진행요원 2명은 전동릴낚시대와 미끼를 곳곳에 준비하느라 분주해 보였다. 10분 쯤 지났을까 부시시한 모습으로 한, 두 분 모습을 보이며 낚시를 하기위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스테파라 불리는 도미류와 갑오징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며 운이 좋으면 고래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낚시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

아 배 앞쪽에서 “왔구나~~” 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를 낚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으뜸은 장자도어촌체험마을 임대일 이장님이 낚아 올린 대형 갑오징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잡은 고기는



굴 까는 시범을 보이는 게리(G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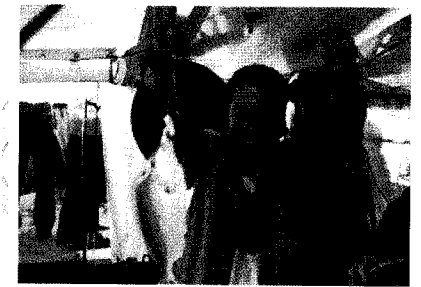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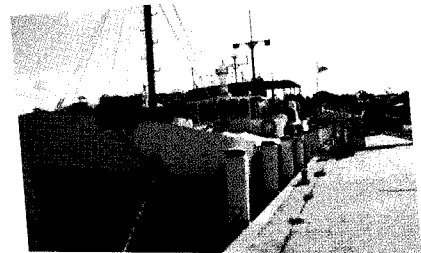
제부리어촌체험마을 최호균 계장님의 신속 정확한 칼솜씨로 모두들 맛있는 회를 즐긴 후 선장이 제공한 조출한 조식을 먹고 낚시는 3시간 정도 더 진행되었다. 여름에는 낚시뿐만 아니라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워터스키 등의 체험을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체험을 마치고 전날 배의 외관이나 내부를 보고 실망을 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낡은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체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개인적으로 배멀미로 인해 고생은 좀 했지만 남태평양에서의 낚시체험은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체험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우리는 알라달라 관광안내센터를 방문했다. 이전에 방문한 넬스마을 안내센터와는 다르게 이곳은 도서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주정부(관광청)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유급 자원봉사자 10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 숙박정보, 차량 렌트



대형 갑오징어를 낚은 임대일 장자도 이장님

숙박을 한 선박(MV BANKS)



월척을 낚으신 장영길 접도마을 운영위원장

방법, 체험예약 등을 도와주며 상대방 업체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 차원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광안내센터 방

문을 마치고 일정에는

없었으나 항내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물 판매장이 눈에 띄어 들어가 보았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판매점과는 달리 구매자가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손질을 완료한 상태로 냉장 케이스에 전시하여 가격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구입한 수산물을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바비큐 시설을 이용해 신선한 상태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어촌에서도 이런 바베큐시설 설치를 통해 체험객들로 하여금 수산물을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매해 요리까지 해먹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란 생각이 들었다.

다섯째 날

호주에서의 마지막 날 일행들은 굴·청꽃게 양식장 체험을 하기위해 시드니에서 2시간정도 거리에 위치한 고스포드 지역의 부룩클린 마을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선착장에 도착한 후 20분 정도를 기다려 우리를 태우고 흑스베리강으로 나갈 크루즈선에 탑승했다. 탑승후 1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우리 앞에 게리(Gary)라는 나이 지긋해 보이는 호주인이 나타났다. 게리는 마치 한편의 재밌는 쇼를 보듯이 퍼포먼스를 통해 굴을 까는 방법, 신선한 굴을 고르는 방법, 굴의 영양학적 특성을 설명하고 굴과 청꽃게를 이용한

요리를 즉석에서 완성, 우리에게 유쾌한 웃음과 함께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총 5명의 인원이 각자 선박의 운전, 요리 준비, 음식 서빙, 퍼포먼스 진행 등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이 나눠져 있었다. 우리어촌 또한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해 체험마을의 운영진들 또한 체험객을 위한 서비스의 개념으로 퍼포먼스를 통한 이벤트성 체험을 진행한다면 체험객들로 하여금 큰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호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웬지 모를 허전함을 뒤로한 채 숙소로 향했다.

맺음말

걱정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시작된 4박 6일 동안의 호주 견학!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긴 오감을 만족 시킨 뜻 깊은 시간이었다.

호주의 경우 연안관광(Coastal Tourism)의 개념을 도입시켜 관광청의 개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소 운영 등으로 다양한 해양 체험은 물론이고 친환경적인 관리로 미래 지향적인 수익과 해외 홍보의 극대화를 통해 어촌마을에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여러 어촌마을을 돌아보며 우리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어촌계 단위의 공동사업 형태로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호주의 경우 어민클럽과 같은 동호회 개념의 자치단체를 결성하여 클럽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과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에 남았다.

호주 해안지역에 위치한 어촌마을의 경우 관광안내센터를 주축으로 관광객들에게 지역 관광정보 제공, 어촌마을 홍보, 체험예약 대행, 숙박예약 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 운영되고 있다.

우리 어촌마을의 경우는 체험안내 센터가 있으나 체험안내 정보제공에 그쳐 그 활용도가 다소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의 관광안내센터 운영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